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 VIP REPORT

■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주원,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3669-6232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Executive Summary .....	i
1. 문제의 제기 .....	1
2. 유학시장의 수요와 공급 .....	2
3. 한국의 유학시장 .....	9
4. 시사점 .....	13

## ■ HRI 경제 지표 .....

15

### ■ 문제의 제기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은 2010년 약 310만 명 그리고 2023년이면 약 72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교육의 세계화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보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 ■ 유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공급) 첫째, 해외에서의 교육기회는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다 둘째, 영어가 주요 전달 수단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범 영어권 국가(MESDCs)의 비중이 45%가 넘는다. 셋째,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부상이 눈에 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범 영어권 국가' 가운데 가장 저렴한 학비를 강점으로 내세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넷째, 중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대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수요) 첫째, 해외에서 교육기회를 찾는 수요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2007년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전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이 15%, 인도가 5% 그리고 한국이 4%를 기록하였다. 둘째, 중국은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 가장 많은 해외유학생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범 영어권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언어권의 선진국에도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국가로 파악되고 있다.

(전공) 유학생들은 주로 실용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기준으로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 인문과학의 순서로 많이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과 공학은 각각 23%와 14%를 차지하였다.

### ■ 한국의 유학시장

(공급) 첫째, 한국학생들에 대한 영어권국가들의 교육기회제공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24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56%가 영어권국가에 체류하고 있다. 둘째, 최근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체 유학생들의 27.5%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요) 첫째, 한국에서의 교육기회에 대한 수요에서 중국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중국학생들의 비중이 70.5%로 나타났다. 중국의 어려운 대학입시가 배출요인(push factor)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문적인 이유보다는 연수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하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실시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연수가 200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

첫째,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의 수준으로 실용학문(경영학, 공학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 또는 유치해야 한다. 둘째, 흡입효과(pull factor)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의 장점을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화, 학문화할 경우 훌륭한 흡입요인(pull factor)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해외 학생들에게 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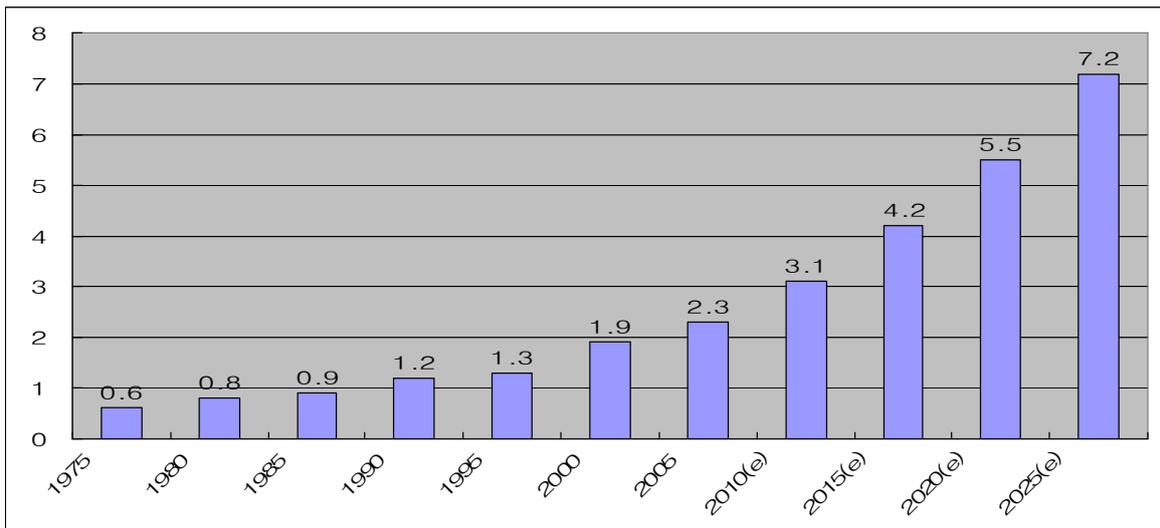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여 교육의 세계화 계속

- 2025년 전 세계유학생 숫자는 7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07년 현재 등록된 학생들 중에서 1.8%가 모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업
- 2010년 전 세계 유학생 수는 3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이 되면 이의 두 배가 넘는 약 7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유학생 수 추이와 전망 >

(단위: 백만 명)



자료: Banks, Melissa, et al (2007), 「Global Student Mobility, An Australian Perspective, Five Years On」, IDP.

○ 불가항력적인 교육의 세계화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

- 지금보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해야
- 외국인학생들을 국내로 끌어들이 기회는 크게 늘어나는 것 또한 예상해야

2. 유학시장의 수요와 공급

○ 적 세계에서 선진지역인 북아메리카와 유럽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형태로 영어권이 선호

-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지역에서만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지역인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학생 유출이 유입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

< 2007년 현재 지역별 유학생 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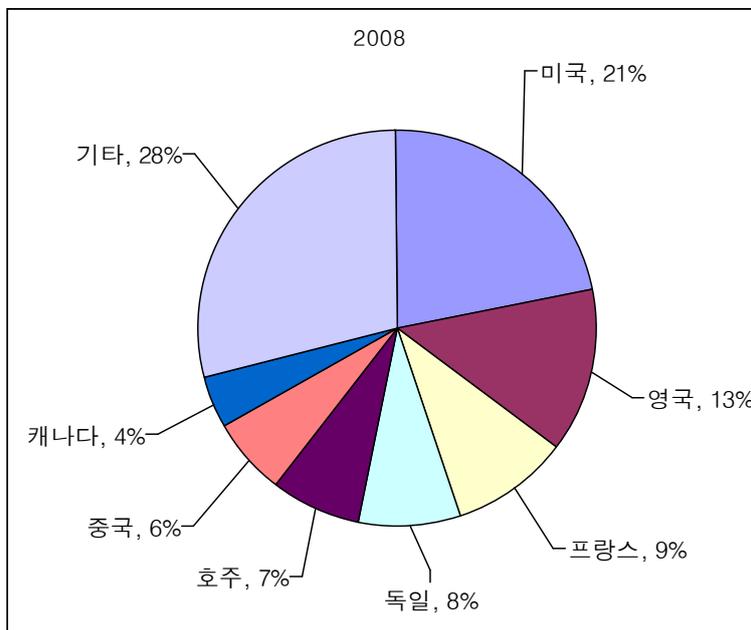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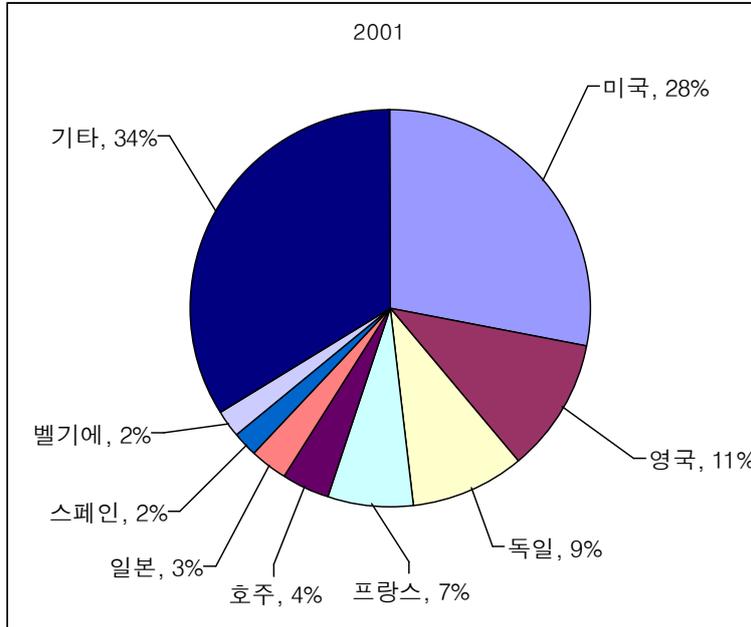
(단위: 명)

	외국인유학생	해외 유학중인 본국 학생	학생 수 수지
아랍지역	80,026	193,752	-113,726
중동부 유럽	199,955	317,637	-117,682
중앙아시아	52,307	97,183	-44,876
동아시아와 태평양	514,290	808,022	-293,732
남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국가	53,113	168,231	-115,118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1,816,945	499,923	1,317,022
서남아시아	10,739	247,437	-236,69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73,095	217,971	-144,876
불명확		250,314	-

자료: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UNESCO, 2009.

- 미국에 대한 유학생들의 선호가 줄어들었지만 대신 범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 증가
- 2001년 약 200만 명의 전 세계 해외유학생들 중에서 28%가 미국, 11%가 영국, 9%가 독일 그리고 7%가 프랑스를 선택
- 2008년 300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21%로 떨어졌지만 영국은 13%, 호주 7% 그리고 캐나다 4%로 증가
- 범 영어권 국가(Major English Speaking Destination Countries, MESDCs)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001년 43%에서 2008년 45%로 그 비중 증가

< 2001년과 2008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외국학생의 유학국가별 구성 비교 >



자료: "Atla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ttp://www.atlas.iienetwor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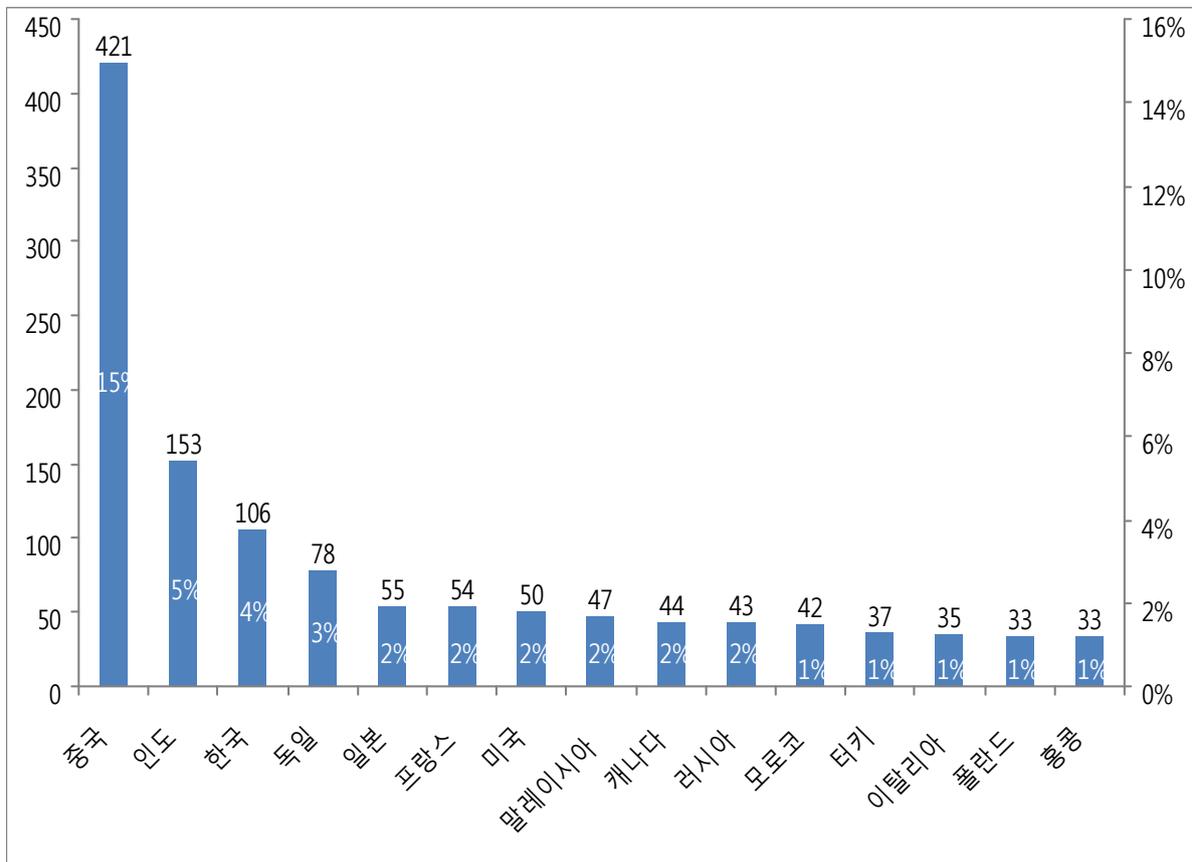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유학생 배출 지역

-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 각각 1위, 2위 그리고 3위 기록

-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전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이 15%인 42만 1천 명, 인도가 5%인 15만 3천 명 그리고 한국이 4%인 10만 6천 명

< 2007년 현재 해외유학생 배출 상위 15개 국가 >

(단위: 1,000명, %)



자료: Chien, Chiao-Ling (2010), 「Global Trends in Student Mobility and Programme Preferences」, Going Global 4,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ar 25.

-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중

- 2006년 현재 중국학생들은 일본에서도 7만 4천 여 명으로 압도적인 1위 기록

< 2006년 현재 주요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중인 학생 분포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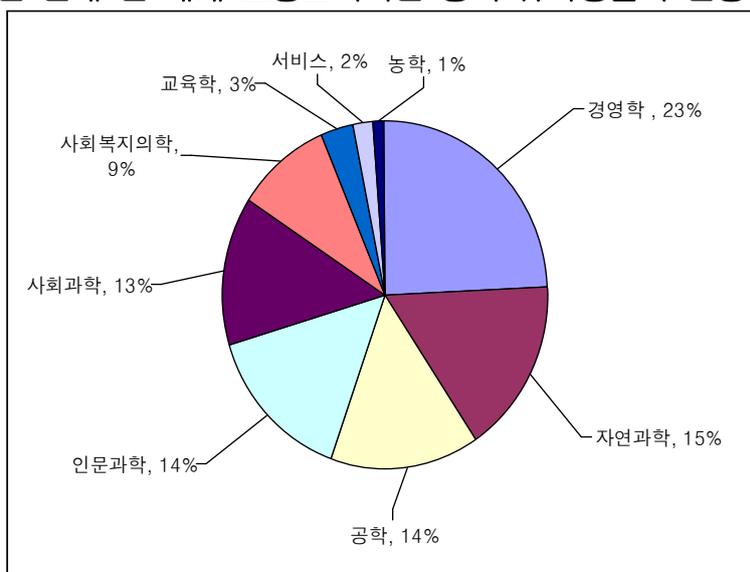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	76,503	중국	59,755	중국	63,543	중국	74,292
중국	62,582	인도	19,205	인도	36,078	한국	15,974
한국	58,847	그리스	17,675	말레이시아	18,074	대만	4,211
일본	38,712	아일랜드	16,790	홍콩	16,558	말레이시아	2,156
캐나다	28,202	미국	14,755	인도네시아	13,025	베트남	2,119
대만	27,876	독일	13,265	한국	12,352	미국	1,790
멕시코	13,931	프랑스	12,455	미국	11,901	태국	1,734
터키	11,622	말레이시아	11,450	태국	10,934	인도네시아	1,553
독일	8,829	나이지리아	9,605	일본	9,110	방글라데시	1,456
태국	8,765	홍콩	9,455	싱가포르	8,906	스리랑카	1,143

자료: Hawthorne, Leslyanne, 「'Two-Step Migration': The Growing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Skilled Migrants」, NEAS Conference, May 15, 2009.

○ 세계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은 경영학과 같은 실용학문을 전공

- 2007년 현재 학생들은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 인문과학 등의 순서로 전공
- 유학생들의 23%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은 15%, 공학은 14%
- 실용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학과 공학을 합치면 약 37%에 달함

< 2007년 현재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 등록 유학생들의 전공별 분포 >



자료: Chien, Chiao-Ling (2010), op cit.

○ 범 영어권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세계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 범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학생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섬

· 2005년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수는 각각 7만 2천명과 6만 6천명으로 뉴질랜드의 4만 7천 명보다 앞섬

< 2005년 현재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만 명)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56.5	31.8	25.5	25.5	24.6	14.1	12.1	7.2	6.6	4.7	4.2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World Education Services, Oct 2007.

· 영어권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 있어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가장 앞서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어권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비교 >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3달 이하 체류 시 학생비자신청 미 요구		○		○			
연계과정 제공	○	○		○		○	○
낮은 학비 (1년 5,000달러 이하)			○		○		
적절한 학비 (1년 5,000~15,000 달러)		○		○			
1주일 1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	○	○		○	○	○	○
낮은 생활비			○		○		
적절한 생활비	○	○		○			○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	○		○	○	○	○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The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Sep 2007.

-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1년 학비가 5천 달러가 되지 않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가장 비싼 미국의 1/18 수준

< 영어권 국가의 년 간 대학등록금 비교 >

(단위: 달러)

국가	대학	전공	등록금
호주	University of Sydney	경영학	18,383
		기계공학	20,164
		철학	16,204
캐나다	Laval University	경영학	10,634
		기계공학	11,852
		철학	11,852
뉴질랜드	University of Otago	경영학	12,120
		기계공학	13,687
		철학	11,050
영국	Oxford University	경영학	21,653
		기계공학	24,748
		철학	21,646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경영학	1,704
		기계공학	1,464
		철학	1,656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경영학	4,445
		기계공학	4,445
		철학	4,445
미국	Harvard University	일반적인 학부과정 1년	31,456

자료: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The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Sep 2007.

- 영어권 밖에서는 중국에 대한 유학이 증가

- 2008년 기준으로 189개 국가로부터 온 약 22만 명의 외국학생들이 중국전역의 592개의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sup>1)</sup>
-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sup>2)</sup>

- 영어권과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유학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영어권 대(對) 중국의 양극화 시작

1)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Daily Telegraph, Oct 1, 2009.

2) "Foreign Student Quota to Expand," China Daily, Jul 29, 2008.

- 2001년과 비교하여 2008년 프랑스를 택한 유학생 비중이 2%p 증가하여 9%가 되었지만 독일은 1%p가 감소한 8%를 기록
- 일본과 스페인은 2001년 각각 2%였지만 2008년에는 그 비중이 더 떨어져 기타 국가로 분류
- 중국에 대한 선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 미국의 경우 Study Abroad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유학을 떠난 대학생들 중 중국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2006/07년 1만 1천여 명으로 전기와 비교하여 25.3% 증가

< Study Abroad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 학생들의 유학국가 >

(단위: 명, %)

순위	유학국가	2005/06	2006/07	변화율
1	영국	32,109	32,705	1.9
2	이탈리아	26,078	27,831	6.7
3	스페인	21,881	24,005	9.7
4	프랑스	15,602	17,233	10.5
5	중국	8,830	11,064	25.3
6	호주	10,980	10,747	-2.1
7	멕시코	10,022	9,461	-5.6
8	독일	6,858	7,355	7.2
9	아일랜드	5,499	5,785	5.2
10	코스타리카	5,518	5,383	-2.4
11	일본	4,411	5,012	13.6
12	아르헨티나	2,865	3,617	26.2
13	그리스	3,227	3,417	5.9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2,512	3,216	28.0
15	체코 공화국	2,846	3,145	10.5
16	칠레	2,578	2,824	9.6
17	에콰도르	2,171	2,813	29.6
18	오스트리아	2,792	2,810	0.6
19	뉴질랜드	2,542	2,718	6.9
20	인도	2,115	2,627	24.2
	합계	223,534	241,791	8.2

자료: 「Global Tendencies in Student Mobil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Mar 23, 2009.

### 3. 한국의 유학시장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유학생들은 범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위과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중 또한 확대

- 한국 해외유학생은 최근에도 계속 증가
  - 2005년 각각 19만여 명이었던 해외 유학생이 2009년 24만여 명으로 증가
-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 출국
  - 전체적으로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59.4%(북미는 85%)

< 2009년 4월 1일 현재 지역별 한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아시아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	아프리카	합계
학위 과정	대학원	7,624	25,734	13	3,993	72	32	37,468
	대학	52,527	46,914	139	7,445	40	47	107,112
	소계	60,151	72,648	152	11,438	112	79	144,580
어학연수		64,682	12,447	121	21,215	124	55	98,644
합계		124,833	85,095	273	32,653	236	134	243,2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범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
  - 한국인 유학생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2008년 26.5%에서 2009년 27.5%로 증가한 반면 미국은 28.8%에서 28.4%로 약간 감소

< 주요 국가별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

(단위: 명, %)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계
2008	62,392	57,504	17,274	17,000	16,774	10,792	10,183	1,923	23,025	216,867
비율	28.8	26.5	8.0	7.8	7.7	5.0	4.7	0.9	10.6	100.0
2009	69,124	66,806	17,031	20,420	18,862	15,971	10,992	2,653	21,365	243,224
비율	28.4	27.5	7.0	8.4	7.8	6.6	4.5	1.1	8.8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영어권 국가 전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필리핀)는 2008년 55.2%에서 2009년 56%로 약간 증가

○ 외국인유학생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교육의 세계화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연수가 선호

- 외국인학생들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 유학 온 전체 외국인학생 중 중국학생들이 전체의 70.5% 차지
  - 2005년 2만 2천여 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이 2010년 7만 5천여 명으로 급증
  -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출신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큰 편차 없이 골고루 분포

< 2009년 4월 1일 현재 주요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53,461	3,931	1,898	1,787	1,256	2,724	10,793	75,850
비율	70.5	5.2	2.5	2.4	1.7	3.6	14.2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어학연수와 기타연수가 적지 않은 비중 차지

-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위과정에 66.7% 그리고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를 합쳐 33.3%가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비학위과정 학생들의 비중이 높음

< 2009년 4월 1일 현재 출신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아시아	48,056	18,471	3,606	70,133
아프리카	409	136	39	584
오세아니아	117	62	42	221
북미	1,247	637	710	2,594
남미	200	146	49	395
유럽	562	636	725	1,923
합계	50,591	20,088	5,171	75,8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에서 실용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학위과정을 통해 실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은 5,286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세계적으로 약 14%)
  - 한국을 실용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2.4%인 1,787명이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공학 전공자는 전체의 37.1%인 663명

< 2009년 4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분포 >

(단위: 명)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어학연수		13,135	2,303	524	280	227	1,040
대학 (전문대학)	인문사회	22,940	631	306	328	486	411
	이공	4,054	22	19	83	38	126
	자연계	1,525	27	34	9	117	47
	예체능	2,150	38	30	5	48	25
	의학계	3	2	18	3	61	-
	소계	30,672	720	407	428	750	609
대학원 (석·박사)	인문사회	4,778	323	271	249	80	760
	이공	1,232	7	16	550	4	133
	자연계	624	9	23	189	4	94
	예체능	561	16	15	3	6	15
	의학계	136	-	19	38	30	21
	소계	7,331	355	344	1,029	124	1,023
기타연수		2,323	553	623	50	155	52
합계		53,461	3,931	1,898	1,787	1,256	2,7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중국학생들의 유입은 흡입요인보다는 배출요인이 더 작용했기 때문으로 중국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가 영향 받음을 의미

- 유학결정요인을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으로 분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흡입요인이 부족
  - 배출요인(push factors)에는 앞선 지식에 대한 열망, 국내 교육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특정 학문에 대한 관심이 속함
  - 흡입요인(pull factors)에는 세계적인 고등교육 기회, 교육을 통한 이민 그리고 해당 국가의 외국학생 유치 전략이 들어있음
  -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흡입요인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유학을 결정하는 요인 >

요인	내용
배출요인 (Push factors)	·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지평 확대욕구
	· 국내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족
	· 특정 학과나 학문분야 추구
흡입요인 (Pull factors)	· 세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교육과 이민의 연계
	· 국가가 지원하는 해외학생 유치 유인 전략

자료: 「Global Education Digest 2009」, UNESCO, 2009: 35.

- 중국학생들의 증가에 있어 좁은 입시관문이 배출요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입시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이 효과의 축소가 예상
- 2010년 중국 대학입시에서 전국적으로 957만 명이 응시했는데 이중 입학정원이 657만 명으로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탈락할 운명<sup>3)</sup>
-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1999년 약 100만 명이었던 대학입학 정원이 2010년 6배 넘게 증가한 셈이어서 중국의 유학자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옴

○ 한국의 발전경험이 해외유학생 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해 약 200회 발전경험을 전수
-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2004년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는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습득을 위해 국내에서 연수
- 발전경험을 체계화, 학문화할 경우 해외 유학생 흡입요인으로 전환 가능

< 2010년 현재 주요 국가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진행 현황 >

(단위: 건)

국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도미니카 공화국	알제리	터키	가나	우크라이나
횟수	36	25	19	18	11	10	9	9	9	8	8

자료: “ ‘한국 성장모델’ 22개국에 200건 전수, ” 동아일보, 2010년 9월 13일.

3) “중국대학입시 시작,” 중국의 창, 2010년 6월 7일 (<http://korean.cri.cn>).

#### 4. 시사점

첫째,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수준으로 실용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거나 과정을 신설해야 함

- '범 영어권 국가'와 중국의 양극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영어에 대한 선호가 우위
- 해외유명 대학의 유치를 통해 영어와 학문에 대한 국내수요를 흡수해야 함
- 경영학, 공학 등의 실용학문을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의 변화필요

둘째,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대국 특히 중국의 배출효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 고등교육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흡입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SCI논문으로 평가한 연구 성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는 일부 국내 최상위 대학교들에 대한 해외 홍보를 지원해야 함
- 중국이외의 다양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셋째,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나 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제3의 발전모델

-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선진국들의 발전경험보다 한국의 것이 보다 현실적
-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적 사회과학을 탄생시키고 다시 이것이 외국의 유학생을 끌어당기는 선 순환구조의 정착이 가능

넷째,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외국학생들이 현지 한국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연계 시킴으로써 한국유학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한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외국 인력의 현지 채용을 통해 한국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함

다섯째, 한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외국학생들에 대해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교육과 영주권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우수한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유학은 이의 연결고리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mailto:syeahk@hri.co.kr), 02-2027-6232)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sup>P</sup>	2009 <sup>P</sup>					2010 <sup>E</sup>			2011 <sup>E</sup>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4.3	-2.2	1.0	6.0	0.2	8.1	7.2	5.9	4.3	
	민간소비 (%)	1.3	-4.4	-1.0	0.7	5.8	0.2	6.3	3.7	4.2	3.8	
	건설투자 (%)	-2.8	2.8	5.1	4.4	5.0	4.4	2.3	-2.9	0.2	1.5	
	설비투자 (%)	-1.0	-23.1	-17.3	-7.0	13.3	-9.1	29.9	30.2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86	131	104	106	427	13	103	230	11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133	30	170	102	124	426	30	144	320	200
		수출(억 \$)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1	1,203	4,575	5,069
		증감률 (%)	(13.6)	(-25.2)	(-21.1)	(-17.6)	(11.7)	(-13.9)	(35.8)	(33.1)	(25.8)	(10.8)
		수입(억 \$)	4,353	714	740	848	929	3,231	981	1,059	4,255	4,869
		증감률 (%)	(22.0)	(-32.7)	(-35.6)	(-31.0)	(1.4)	(-25.8)	(37.4)	(43.2)	(31.7)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3.9	2.8	2.0	2.4	2.8	2.7	2.6	2.9	3.0		
실업률 (%)	3.2	3.8	3.8	3.6	3.3	3.6	4.7	3.5	3.8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44	59	68	75	62	76	79	78.8	88.7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6	1,159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